

현대 금속가구디자인의 시대적 배경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의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iodic Background &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Metal Furniture Design
-Focused on the Chair-

한영호(Han Young Ho)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실내디자인전공 교수

본 연구는 2000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현대 금속가구디자인의 배경

- 2-1 1850-1920년: 현대디자인의 형성과 철강시대의 부산물인 금속가구의 등장
- 2-2 1921-1940년: 1차 세계대전 이후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 이념의 시대
- 2-3 1941-1960년: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주의 양식의 성립과 스칸디나비아의 디자인
- 2-4 1961-1985년: 후기 산업사회의 영향과 포스트모더니즘
- 2-5 1986년-현대: 디자인의 다원화 시대

3. 현대 금속가구디자인의 특성

- 3-1 1850-1920년: 직선적 요소의 응용
- 3-2 1921-1940년: 건축적 방법을 적용한 강철(steel) 가구
- 3-3 1941-1960년: 경량성(Lightness)과 이동성(Mobility)의 강조
- 3-4 1961-1985년: 인체의 적용 및 부정형적 형태
- 3-5 1986년-현대: 디자인의 다원화와 금속의 새로운 조형 창출

4. 결론

참고 문헌

(要約)

현대 금속가구디자인은 기술과 재료의 새로운 도입과 구조적 해결, 가치관의 변화, 표현방법의 변화 그리고 정치 사회 구조를 통한 시대정신의 표현을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금속가구디자인 작업에 앞서 금속가구디자인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금속가구디자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가구디자인의 배경 및 특성을 구분·정리하여, 금속가구 발달에 영향을 미쳤던 제반 환경 및 사회적 요인들과 관계를 이론적 틀로 제시함으로써 각 시대별 금속가구디자인의 특성과 문화의 발달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각 시대별 금속가구의 종류는 다양하나, 여기에서 지칭하는 금속가구는 의자에 한정하여 정리하였다.

(Abstract)

Modern metal furniture design can be defined as the spirit of the times. It reflects the society we are living in; political and social issues, new technology and materials developed, structural solution, and changes on the sense of value of a period. Therefore, the metal furniture design professionals must understand the flow of the society before designing or producing. Understanding the trends of a period is crucial for the metal furniture designers to develop the speciality.

This study aims to offer the chance to understand and analyse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metal furniture design and the cultural development. It gives the theor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al background and social factors that have influenced on the development of metal furniture design.

(Keywords)

Metal furniture, Furniture design, Chair,
Historic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디자인의 의미란 다른 예술영역의 특정한 시대적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며 특히 금속가구디자인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기술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발전되어 왔다. 또한 산업혁명 이후로는 단순히 가구의 기능적 특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와 경제적 맥락의 반영에 따른 특성을 확연히 표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가구디자인의 배경 및 특성을 구분·정리하여, 금속가구 발달에 영향을 미쳤던 제반 환경 및 사회적 요인들과 관계를 이론적 틀로 제시함으로써 각 시대별 금속가구디자인의 특성과 문화의 발달을 깊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기술적, 문화적 배경의 복합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혁명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금속가구디자인 양식 및 특성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금속가구관련 분야에 전문가로 될 수 있도록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는 금속가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산업혁명이후에서 현재까지로 범위를 한정하여 대표적 시기들로 분류하였다.

연구 방법은 국내외 관련문헌, 잡지, 컴퓨터 검색, 각종 업체 및 조합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시대별 분석을 거쳐 핵심 자료를 추출하였다.

2. 현대 금속가구디자인의 배경

2-1 1850-1920년: 현대디자인의 형성과 철강시대의 부산물인 사무용 금속가구 등장

2-1-1 사회적 배경

산업혁명 초기에는 질보다 양의 추구, 즉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슬로건 하의 공리주의 이념이 팽배하였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평준화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문화적 측면으로는 소수 귀족집단에 의해 독점되어 오던 문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독특한 지역문화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매스컴의 발달과 그로 인한 대중문화의 결성을 통하여 대중에 확산되고 향유될 수 있게 되었다.

2-1-2 기술, 경제적 배경

이 시기 미국에서는 대부분 영국 복고풍 가구의 모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마침내 가구제작자가 아닌 디자이너에 의해 실용적이며 창의성 있는 의자들이 개발되었다. 1850년대 이후 회전의자, 접는 의자, 접는 침대, 다용도 테이블이 미국 특허국에 등록되었고 오늘날 비행기 좌석의 원형인 뒤로 젖히는 철도용 의자 그리고 치과용 의자의 원형인 조절할 수 있는 이발소 의자가 디자인되었다.¹⁾

산업혁명 이후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의 주철제조, 용강법 발명, 철 정련법, 철강 제조의 신기법 등 철 생산량과 철 제조 방법에 있어 큰 혁신이 있었으며 자동 조립라인의 도입이 있었다. 당시의 전환기적 경향은 미학적 관점에 기초를 둔 가구

의 생산비용이 높았고 실제로 기계미학의 제조능력이 높은 단순한 형태의 스타일링에 관한 인식은 없었지만 새로운 양산 체제에 있어서 제조방법의 단순화를 위해 가구의 형태가 단순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851년 2월에 완성된 조셉 팍스톤이 설계한 런던 대영박물관의 수정궁은 강철을 규격 재료로 조립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었다. 기원전 1200년부터 강철 연장을 쓰기는 했으나, 19세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강철의 충분한 양을 제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프랑스의 구스타브 에펠(Gustave Eiffel 1832-1923)은 1889년 박람회를 위하여 후일 아메리카 마천루 골격의 원형이 되는 에펠탑을 세웠다. 이러한 생산력의 비약적인 증진과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공학 기술과 건축의 개혁은 디자인에도 직접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사무용 금속가구는 독특한 발생배경을 가지고 있다. 1800년대 후반, 미국 시카고에서 건축가 루이스 설리반(Louis Sullivan)과 그의 동료들이 시카고의 대 화재로 인해 폐허가 된 사무용 건물들을 다시 설계하였을 때, 새롭게 발전된 강철과 벽돌을 사용하는 구조를 이용하여 현대적인 고층건물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수직으로 높이 올려진 고층건물이 만들어지면서 건물들이 화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대중의 요구가 높아졌다. 비록 건물의 외관이 목구조 건물과 비교할 때 화재의 위험은 감소했지만, 아직 내부는 다량의 목재가구와 다른 가연성의 재료들이 널리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화재의 위험과 그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가구업자들은 전통적인 사무용 목재가구를 대체할만한 소재로 화재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강철을 이용한 사무용 금속가구의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02년에 오하이오주 영스타운(Youngstown)에 '제너럴 방재회사(General Fireproofing Co.)'가 설립되었고, 1912년에 '스틸케이스(Steelcase)'사가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에 세워졌다. 스틸케이스사는 클래식하면서도 견고하고, 불에 강한 두께가 달린 금속제 책상의 공급과 파일링 시스템을 케비넷, 선반 등으로 대체하여 대중의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유럽으로 시장을 넓혔다.

2-1-3 조형적 배경

산업혁명을 고비로 생산기술은 수공 기술에서 기계 기술로 바뀌었고 건축과 공예는 수공과 기계와의 괴리에 직면하여 선택해야 할 두 가지 길에 놓이게 되었는데, 하나는 기계를 인정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수공기술을 고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전자는 독일 산업계이고 후자를 선택한 사람은 영국의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 영국)이었다.²⁾ 이 시기는 오늘날에도 존속되고 있는 양 갈래의 흐름, 즉 미술적 질에 중점을 둔 흐름(The Art Oriented Stream)과 디자인에 있어서 논리성과 정보, 수치를 활용하는 과학적 방향의 흐름(The Science Oriented Stream)을 파생시켰다. 그것은 독일의 표현주의(Expression)와 프랑스의 입체파(Cubism)의 두 큰 줄기를 근원으로 하여 생성된 것이다. 그밖에도 19세기 말 전환기

1) Ann Ferebee, 서빙기 역, 디자인 소사, 서울: 미진사, 1983, pp30-37.

2) 정시화, 현대디자인 연구, 현대디자인의 이론적 배경, 서울: 미진사, 1981, pp145-149

예술은 불길처럼 폭발한 포비즘(Fauvism), 이탈리아의 미래파(Futurism), 러시아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 그리고 네덜란드의 신 조형주의(Neoplasticism) 등등의 미술운동으로 활발히 움직임을 보였다. 1897년경 오스트리아의 오토 바그너(Otto Koloma Wagner, 1841-1981)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 회고주의와 양식주의의 결별을 선언하고 간결하고 단순한 미를 추구했던 분리파(Sezession)는 구조와 재료의 합목적성과 직선, 단순, 명쾌한 미로써 새로운 조형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당시에 만연한 아르누보의 부드러운 곡선에 대하여 매킨토시와 같은 직선주의적 인테리어가 생겨나는 배경이 되었다. 1909년 미래파(Futurism)의 미학 이론은 기능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미래파의 미는 완벽한 기능적 능률에서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것으로, 1920년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1887-1965)는 집을 생활을 위한 기계로 표현하였다.

20세기초의 전환기 예술운동의 활발한 움직임 가운데, 1907년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을 중심으로 데 스틸(De Stijl)은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적인 사조의 영향을 받아 아르누보 후기에 있었던 네덜란드의 장식운동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가구, 건축적 측면에서 데 스틸의 목적은 공간에서 사물이 격리되는 것을 막고 유기적으로 통합된 것으로써 형태와 공간을 다루려고 하였다. 데 스틸의 영향은 바우하우스(Bauhaus)와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의 생성에 있어서 근원이 되었다.

2-2 1921-1940년: 1차 세계대전 이후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 이념의 시대

2-2-1 사회적 배경

1차 세계대전(1914-1918)은 그 결과로서 그 시대와 사회를 자극하고 놀라운 변혁을 가져왔다. 군사적 영역을 훨씬 벗어나 모든 방면의 산업발전을 자극하고 자연과학의 진전을 초래했다. 전쟁과 같은 긴급한 요구에 따르는 디자인의 변모과정을 보면, 각 국가의 정치이념과 사회양상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결국 디자인은 유사한 형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완벽한 기능과 효율을 위주로 한 구조와 형태 개념이 확립되었다. 예술가의 정치적 책임 구현의 움직임으로 시작된 바우하우스의 이념운동은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바우하우스에서 비롯된 기능주의 이념운동은 전 유럽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1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에서는 경제적 불경기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단체로 하여금 대중 공공주택 계획에 자금을 조달하게 하였다. 그 당시 바우하우스 가구 공방은 이러한 경제적 문제들을 고려하여 작업실의 기본적 의무를 자동방식에 의한 공장을 위한 비싸지 않은 가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우수한 표준화'를 연구하였다.

2-2-2 기술, 경제적 배경

1920년대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재료는 건축의 구조를 다양하게 하였다. 가구디자인은 고층건물, 다리, 산업용 플랜트 등과 상호 관련 속에서 금속의 단단하고 실용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게 된다. 이 당시 강철이 고층건물에 활용되었지만 돌

과 콘크리트만이 구조재라는 인습적 고정관념 때문에 다시 건축의 표면을 마무리 지었던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다. 점차로 건축표면이 콘크리트에서 유리나 강철로 대체되면서 건축의 표현양식이 이념과 더불어 일치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 당시는 건축의 철골구조에 의한 켈틸레버 건조 방식에서 받아들여온 켈틸레버의 원리를 가구디자인에 도입한다. 켈틸레버란 일단 고정, 한쪽에서 지지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을 의자에 도입함으로써 좌석과 등받이가 전통적 쿠션 대신에 직물이나 가죽의 사용만으로 탄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인체공학적 구조에 잘 적용되어 안락감을 느낄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져다 주었다.

의자의 소재로 금속이 사용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의자에 이용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1920년 이후이다. 특히 금속 파이프를 의자의 재료로 사용하게 된 것은 가구디자인의 개가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1921년 바우하우스에서 그로피우스가 주장한대로 이 당시에 부재의 크기를 규격화하여 주택의 양산 방법의 모색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듈에 관한 개념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조립 부품으로 미리 제작된 모듈이나 유니트를 옮겨간 다음 서로 조립해서 건물을 짓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공정은 가격이 저렴하고 건축기간이 단축되며 모듈의 다양한 조합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개념은 점차 건축에서 뿐만 아니라 가구디자인에도 수용되었다. 1929년 조세프 알베르스가 데사우 바우하우스를 위해 디



<그림1> 알코아 의자 (Alcoa Chair), No.203

자인한 의자는 그 한 예이다. 이 의자는 강철 파이프로 만든 크로스 바(Cross bar)와 성형합판으로 만든 골격과 스프링 쿠션으로 이루어졌다.

1930년대에는 알루미늄 합금에 의한 금속가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알코아(Alcoa)사에서 브루스 바스터키(Bruce Bastoky)의 알코아 알루미늄 특수 의자(Distinctive Chairs of Alcoa Aluminum, 1934)를 생산했다. 이후 50여년 동안, 이 회사들과 다른 금속가구 회사들은 그들의 경쟁자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많은 시도를 해왔다.

재료에 있어서 대체로 20세기에 들어서서 목재가 가구의 소재로 이용되는 비중은 줄었으나, 합판가구가 개발되면서 공업적 재료와 함께 많이 이용되었다.

2-2-3 조형적 배경

데 스틸의 배경을 지닌 기능주의적 디자인 조형이념은 이 시기에 와서 독일공작연맹과 바우하우스에 의해 완성되었다. 독일공작연맹(DWB)의 목표는 미술이나 산업 및 실업의 각종 영역에서 최고의 지혜를 모아 실제 사용하는 생산품의 질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었다.³⁾ 그 방법으로서 제품에 있어서 질적 표준화를 위해서 표준화된 형태를 이용하였다. 새 시대의 조형은 기능적 사고방식으로 성취되어야 하며 사회

3) 勝見勝, 박대순 역, 현대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미진사, 1983, p25.

를 위한 조형이어야 한다는 독일공작연맹의 조형관은 바우하우스에까지 계승되어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바우하우스는 이론과 실제에서 조직적이며 실험적인 작업을 통해서 미적,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각 사물의 본래 기능과 그 사용조건으로부터 그것들의 형태를 추출해 내기를 원했다. 바우하우스 생산품의 원칙은 20세기 거대한 기능주의의 기본 원리이며 이와 같은 합리주의적 사상은 아카데미한 색채를 띠고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⁴⁾ 이 기간은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 이념이 가구 자체에 보다 더 영향력을 지녔던 시기이다.

한편, 30년대 미국에서는 평범한 형태의 금속가구를 만들던 회사들이 사무공간의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구조를 찾고자 노력했으며, 당시 영향을 주던 모던(Modern)한 형태에서부터 매끄러운 이탈리아 스타일(Italian style)까지의 다양한 변화를 소개하였다.

2-3 1941-1960년: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주의 양식의 성립과 스칸디나비아의 디자인

2-3-1 사회적 배경

건축과 디자인에 있어서 국제주의 양식은 미국에서 완성되었다. 미국의 산업은 전쟁 중 손상되지 않고 동적인 산업체제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었고 대중문화는 급속히 발전하였다. 또한, 새로운 미개물의 발전으로 대중문화는 급속하고 광범위한 뉴스를 전하면서 우리들의 환경에 영향을 준 기존 양식의 변화나 기존의 도덕을 변모시키는 데 영향력을 발휘했다.⁵⁾

경제적인 능력을 지닌 미국의 산업에 유럽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들과 함께 가구디자인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폭탄에 의해 부서진 건물을 재건하는 것이 당면과제였고, 강철과 유리로 만든 건축은 이해하기 쉬운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써 전쟁의 파괴로부터 복구 중이던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은 다시 그 근원지에 국제양식의 부활을 가져오게 하였다.

한편으로,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은 유럽과 미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19세기와 20세기 초 사이 오랜 평화의 시기를 누려왔고 바우하우스의 기술적 접근방법이 유럽에 만연해 있을 때에도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유지시켜 왔으며,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구디자인과 제작기술을 발전시켰다. 유럽 디자인에 있어서는 새로운 향토적 낭만주의가 출현했고 그것과 더불어 디자인에 있어서 여러 양상을 띠는 수많은 자국적 양식이 생존하게 되었다.

2-3-2 기술, 경제적 배경

2차 세계대전 동안 개발된 신소재와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기법 등은 전쟁 후 산업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새롭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디자인 방법으로서 시스템적 접근, 운용과학 등이 디자인 의사결정과 새로운 기법 개발에 인용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스미스(David Smith)의 용접법을 이용한

금속절단과 결합에 대한 실험은 과거 볼트나 리벳으로 금속을 접합하던 방식에서 발전하여 자유로운 구조를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알루미늄은 풍부하고 가벼운 금속 중의 하나로서 다양한 가공법으로 실용적이고 가격이 저렴한 특징을 지닌 재료이다. 또한 녹이 슬거나 변색하지 않고 열 전도율이 높다. 기계에 의해 만들어진 표면과 형태로써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어울리는 재료이기도 하다. 이 시기 알루미늄 가공기술이 발전되어 가구디자인에도 많이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조의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에 이르러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가구는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는데, 이들의 수공 마무리는 효율성과 인간의 성질에 독특한 조화를 가능케 하였고, 그들을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명하게 만들었던 높은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요인이 된다. 디자이너들은 높은 공예가 정신과 정밀한 구조, 실험적 작업, 재료에 대한 진실, 그리고 독특한 미학으로 국제적 평판을 얻을 수 있었다.

2-3-3 조형적 배경

국제주의는 산업기술의 축적과 디자인적 접근의 정당성을 토대로 성립되는데, 지역적 특수성에 우위하는 보편성을 강조한다. 그로피우스 이래의 기능주의는 철, 유리, 콘크리트를 사용한 기계미학에 근거한 순수한 형태의 합리성을 내세운 광대한 유리면과 철의 커튼 월(Curtain Wall)로 표현되어 있다.

결국 인간의 사고에 있어서 두 가지 지배적인 원리를 갖게 되었다. 첫 번째 원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면 마땅히 해야한다는 원리인데 그것은 휴머니즘(Humanism)적 전통의 가치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번째는 최대의 효율과 생산이라는 원리인데, 최대의 효율은 결국 개성의 최소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동일성을 발견하는 것을 배워야 하였다.⁶⁾ 이와 같은 기술 사회를 바탕으로 한 산업 사회는 특유의 기본 구조로서 규격화, 분업화, 동시화, 극대화, 중앙집권화 등의 특징을 지닌다.⁷⁾

1950년대 이후 다원화된 현대의 미술사조 가운데 팝아트(Pop Art)와 옵아트(Op Art)의 성격은 산업사회의 대량생산과 기계적인 미학 등을 대변하고 있다.

앗상블라주(Assemblage)의 영향은 점차 팝아트의 범주에 들어와 대중적 이미지의 제시라는 성격이 뚜렷하여 지면서 추상 표현과 대립되는 조형의식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현대사회의 모습 그 자체를 보여 주는 과감한 혁신이었다. 이로써 예술은 개성의 표현이라는 미학의 시대에서 사회의 표현이라는 미학의 시대로 그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다.⁸⁾

1950년대 중반의 예술 경향인 옵아트는 과도하게 지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인문과학보다는 자연과학에 가까운 것이었다. 미술 사조에 있어서 객관성과 대중성, 기계 미학을 주

4) 권명광, 바우하우스, 미진사, 1984, p117.

5) Lawrence Alloway, American pop Art, New York, Rizzoli, 1974, pp3-5.

6) Alvin Toffler, 유재천 역,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학원신서, 1985, pp78-89.

7) 김광남, 현대 인테리어 디자인의 특성 및 경향, 홍익대산업미술대학원, 1985, p22,

8) 김춘일, Pop Art와 현대인, 열화당, 1983, pp26-27.

제로 한 것이 이 당시 가구 양식의 특징과 일맥상통한다.

2-4 1961-1985년: 후기 산업사회의 영향

2-4-1 사회적 배경

50년대 말 미국의 경우, 산업사회의 종말을 고하는 전환기였고, 60년대 중반은 정보혁명과 첨단 테크놀로지 등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 사회로의 전환기였으며, 70년대 중반에는 대체 기술 운동으로 과거의 산업사회와도 전혀 다른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술의 혁신으로 도구의 소량 주문생산, 다양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생산조직의 변화는 인간생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은 디자이너의 상상력에 도전하고 미학적 가치를 위협함으로써 새로운 양식의 모색을 조장하였다. 이 시기 문명의 특징은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므로 사회의 많은 가치들에 대하여 재고해 보는 것이었다.

60년대 이후 성장의 한계에 따라 과학기술이나 생활의 물질적 수준 같은 관점만 갖고서는 진보를 더 이상 측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대기오염과 쓰레기 범람, 자원고갈, 도시부패, 인구증가 등의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의 모색과 과거의 문명과 풍조에 대하여 반성이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적극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2-4-2 기술, 경제적 배경

공장은 대량생산 이후의 시대에 들어와 있으며, 정보에 대한 수요는 매우 급격한 성장을 가져왔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과거의 산업사회와는 다른 개념의 대체 기술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오늘날 테크놀로지의 인간소외, 공해, 자원 낭비적 측면으로 인해서 테크놀로지 발전에 대해 대안적 양식이 추구되어 왔는데, 이 대체적 테크놀로지는 인간과 자연을 테크놀로지의 지배와 이기적 이용으로부터 해방해 낼 도구 및 기제를 의미하고 있었다. 산업사회의 테크놀로지가 거대한 생태계적 재난에 의해 붕괴될 것에 대비하여 대체적 테크놀로지는 개발되어야 하며 자국의 부존자원과 자국의 특수한 필요에 부응하는 테크놀로지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고도 정보 사회의 산업은 지금까지의 명백한 물질의 가치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컴퓨터 및 통신분야에서 전자공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혁신을 일으켰다. 디자인이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연결된다는 것, 인간을 주역으로 한 것, 즉 기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인간화를 목표로 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향하기 시작하였다.

2-4-3 조형적 배경

이 시기에는 현대디자이너가 추구해 온 양산성, 실용성, 경제성의 근거와 그것들을 추구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기능주의의 엄격한 일의적(一意的) 표현방식은 대중의 기능을 표현하기에는 무리한 것으로 확립성의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인간의 가치에 근거한 디자인 철학을 탐색하고 인간의 회복에 요구되는 완전한 인식을 위한 하나의 행동양식을 창조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특히 이탈리아에 강하게 파급되었고,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불안감의 표시는 맨 처음 몇 건축학파를 통해 나

타났다. 1960년대 후반 반 디자인 운동(Anti design 혹은 Counter Design)은 디자인과 건축의 발전에 관심을 둔 것으로 건축과 디자인 그 자체를 무시하고 역설과 이상향을 구사한 것이 특징이다. 그들은 소비와 동력이 되는 디자인, 즉 자본주의 윤리를 부정하는 비상업적 입장으로, 소비를 위한 생산체에 기여하기를 중단한 디자이너들의 역할로 귀추가 주목되었다. 또한, 인간의 가치에 근거한 디자인 철학을 탐색하여 인간에게 의미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새로운 형상화 방법을 찾는 것이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모든 기능주의의 흔적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디자인 활동으로 영국 건축 그룹 아키그램(Archigram)과 플로렌스의 실험조각인 글로벌 툴즈(Gloval Tools)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 시기의 특징을 이루는 것으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대상물의 의미를 분석하고 정의하는데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제는 디자인의 방법으로서의 형태가 아니라, 의미로서 그 존재가치가 부여되었다.

고정 관념적 가치를 거절하고 이들의 사회적 의의를 제기함으로써 동시에 새로운 미학을 통하여 진보적인 양식으로서 이념적 틀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 이들의 활동은 가구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갖고있는 보편적 가치를 거절하고, 이것의 사회적 의의를 제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디자인 목적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디자인의 목적은 인간의 물질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디자인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적, 즉 실용적인 것은 2차원적인 것이 되고, 우선 인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시각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부각되는 경우, 혹은 아예 기본적인 기능은 배제한 경우 역시 존재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실용적 조형의 디자인에서 순수조형의 디자인도 인정되는 것으로 디자인의 목적이 다양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6년 게리예로가 결성한 스튜디오 알키미아(Studio Alchymia)의 디자인은 50년대의 진부한 물건이나 추상미술에서 디자인의 시각요소를 따왔고, 50년대의 문화 부재적 환경을 환기시키는 낙천적 가구들을 제작하였다.

2-5 1986년-현대: 포스트모더니즘과 디자인의 다원화 시대

2-5-1 사회적 배경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현대 가구디자인은 기술과 신소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그 특성에 따라 형태와 구조 색채의 결과가 달라지곤 한다. 이러한 기술 향상과 공학적인 신소재의 개발로 이 시기의 가구들은 일종의 하이테크 스타일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멤피스(Memphis)는 80년대 초부터의 기울어진 책상, 꼬떡이는 테이블, 손잡이 달린 의자와 같은 시각적 관능주의와 초현실적 특징을 지닌 디자인 활동을 통하여 신문과 대중에게 대단한 반향을 일으킴으로써 디자인 운동에서 '대체'의 가능성을 살리는데 성공하였다. 멤피스 디자인의 공통점은 모두 공업재료를 썼고 기능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밝은 색상을 사용하였고, 장식적 결집인 점이다.

이들은 플라스틱 적층판(Laminate), 알루미늄, 유리 등을 재

료로 하여 대량생산에 알맞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제안의 형태상의 특징은 고정적 형태의 변형이라는 것과 가끔 자연발생적이고 위트 있고 낙천적이며 직관적이란 것이다.

멤피스의 활동은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야기되는 질문과 비평을 뛰어넘는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능력을 가졌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문화운동이다. 또 디자인이 산업과 상업의 부가물이 아닌 인간과 물질세계 사이의 순수한 의사소통의 매개가 되는 방법들을 찾아 노력한 것은 회화, 조각, 그리고 디자인 사이의 구획을 짓는 결과로써 표현된다.

2-5-2 기술, 경제적 배경

1970년대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 세계경제는 점차 회복기를 맞는다. 업체와 디자이너들은 세계 무역에서의 흑자 수지를 위해 제품생산을 위한 프로젝트 과정에서 소비자와의 세심한 커뮤니케이션을 인식하고 반영하게 되는데, 이는 신소재 개발과 새로운 기술을 통해 성취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미래디자인 성찰의 주요한 테마가 될 수 있음을 예견하게 한다. 1990년대는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게되나, 기술과 소재에 의해 새로운 기능의 제품들이 탄생되기도 하였으며 이것은 다른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소재개발의 응용으로 가능하였다. 디자인의 적합성으로 획일적인 디자인을 거부하는 이 기간은 다양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그 범위를 정하기에 모호한 공통적인 조형양식을 볼 수 있다. 이는 현대 소비사회의 다양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자 하는 반응으로 보여지며 1980년대부터 디자인의 다원화를 이루게된 결정적인 요인이라 하겠다.

2-5-3 조형적 배경

1981년 밀라노에서 에토레 소트사스(Ettore Sottsass Jr.,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시작한 실험적 그룹인 멤피스는 처음 시작은 소트사스의 고대문명에 대한 심취와 현대 팝 문화에 대한 관심의 결합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들의 과감한 실험은 디자인에 있어서 형태 못지 않게 의미를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급진적 의미를 지닌다. 형태적 특징은 감성적이었지만 그들은 비판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제안적이었다. 스타일에 있어서 낙천적이며, 성숙을 거부하며 직관적인 것이 형태상 특징으로 이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언급이라기 보다는 전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유래없는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태도였다.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는 근대 건축운동 이후의 경향에 대하여 레이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구분하였다. 레이트모더니즘은 근대건축운동의 사상, 이론, 양식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자는 입장으로서의 미를 기술적인 완성의 결과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라 본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건축 사상을 의도적으로 전면 거부하며, 새로운 건축의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하는 운동에서 시작하여, 건축이 기술적 측면과 심미적인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으로 의사소통하는 사회적 예술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건축가는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키기 위해 폭넓은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방법론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화운동으로서 디자인의 산업과 산업의 부가물이 아닌 인간과 물질세계 간의 순수한 의사소통의 매개

가 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대중과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은유, 장식, 다색채, 관습 등의 레퍼토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양식(International style)처럼 하나의 공감대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 공감대는 국제양식과는 달리 다원화된 절충주의라는 차이가 나는 공감대를 이룬다. 포스트모던의 디자이너들은 이미지를 명백한 직유로 나타내는 의인적인 은유나 형이상학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모던 건축가와 달리 표현상의 형이상학적인 면을 사용하고자하는 의도이다. 아미도 은유와 상징의 사용은 모던 운동에 억압되어 왔던 이유로 이 당시 그들의 재출현은 이제 미확립된 형이상학적 시대에 지나치게 강조된 느낌을 준다.

3. 현대 금속가구디자인의 특성

3-1 1850-1920년: 직선적 요소의 응용

이 시기 금속가구의 특징은 이미 빅토리아 시대에서 보여주었던 표면 장식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뚜렷이 보이며, 입체파(Cubism)와 데 스틸의 영향으로 가구디자인에 있어서 직선적 요소를 취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대리석이나 참나무, 은 등의 고급 재질의 모방에 관한 관심보다는 디자이너가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 양식 기능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게리트 리트벨트(Gerrit Rietveld: 1888~1964, 네덜란드)는 화가 몬드리안과 함께 1920년대의 데 스틸(De Stijl)운동을 주도했다. 그의 적-청의자(The Red-Blue Chair)는 슈뢰더 하우스(Schroder House)의 어두운 벽면과 마루에 대치되는 노랑, 빨강, 푸른 색 칠을 함으로써 의자가 비물질화되는 효과를 갖도록 한 것인데, 그의 의도는 당시 값비싼 수공예적 의자로부터 벗어나 기계적으로 절단된 몇 개의 각목이나 철판으로 누구나 쉽게 의자를 만들게 하자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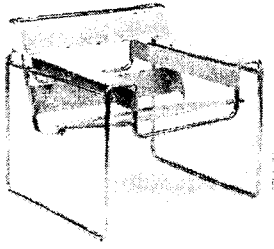
또한 이 의자는 보수성을 지니고 있던 가구디자인의 영역에서 한 차원 넘어 디자이너의 표현 양식이 하나의 데 스틸이라는 양식운동의 표현에 부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의자는 표현주의적 미의 수단으로 시도한 구성상의 문제를 우선으로 하였고 베른트 뢰바흐의 기능 중심 제작의 기능보다는 미적 기능을 만족시키는 의자이다. 즉 실용품의 형태적 특징을 지닌 구조적인 예술품으로서 새로운 시도를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3-2 1921-1940년: 건축적 방법을 적용한 강철(steel) 가구

1920년대에는 바우하우스 공방을 중심으로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Lajos Breuer:1920-1981, 헝가리), 마르트 슈탐(Mart Stam: 1899-1986, 네덜란드),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1888-1965, 프랑스), 조세프 알베르스(Josef Albers),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1886-1969, 독일) 등의 디자이너들이 작품활동을 하였다.

바우하우스 가구공방 책임자로 임명된 마르셀 브로이어가 제작한 바실리 의자(Wassily Chair)는 당시 바우하우스의 교수였던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에 경의를 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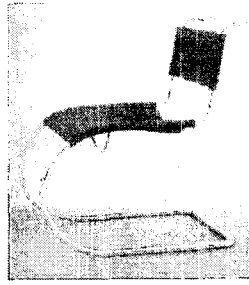
9) Karl Mang, History of Modern Furniture, London; Academy Editions, 1979, pp102-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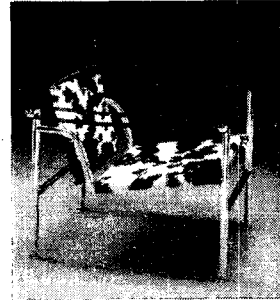
<그림2> 마르셀 브로이어의 바실리의자 1928

뜻에서 그렇게 명명한 것으로, 인체와 잘 맞도록 신축성 있는 탄력 밴드나 가죽이 강한 골격이 매어져 있다. 이 의자는 부드럽고 깊은 쿠션만이 안락하다는 종래의 관념을 탈피했다.¹⁰⁾ 슈탐은 1926년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베르트분트 전시회를 위해 한쪽 다리를 없앤 강관의자 'S33'을 디자인하였다. 몇 달 후 미스 반 데 로에는 매우 유연성 있는 의자 'MR'을 베르트분트 전시회에 선보였다. 스틸 파이프를 이용한 최초의 의자인 슈탐의 'S33'은 강철관을 사용하였지만 관 안에 보강제로서 지름이 작은 철관을 넣었기 때문에 탄력을 이용한 의자의 효과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MR'은 항구적인 스프링 기능을 충족시키는 최초의 강철관 의자로서 평평한 탄소강을 냉각시켜서 튜브 내벽 속에 얇은 피막을 넣는 방법을 적용한 것이었다. 마르셀 브로이어가 1928년에 제작한 세스카 의자(Cesca Chair)는 이 무수한 캔틸레버 의자 중 그 원리를 가장 완벽하게 적용한 경우로써 파이프 의자 중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캔틸레버 구조에 등나무로 엮은 시트와 등받이를 결합한 것으로 제작과 운송에도 경제적이었으며 마르틴 슈탐의 경우보다 강관(steel tube)의 재료에 있어서 잠재력을 더 잘 이용하였고, 미스 반 데 로에보다 대량생산 면에서 진일보하였다. 구조적으로 이음새를 줄이고 금속의 탄력을 이용한 캔틸레버 원리를 적용한 점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 시기 이후로 곡목의자(Bent Wood)를 대신하여 강철에서 현대가구를 내세우게 되었다.

르 꼬르뷔제의 가구는 방법적인 면에서 건축적이다. '그랜드 콤포르트(Grand Comfort)'는 금속 튜브를 휘지 않고 각기 용접하여 니켈 도금하여 만든 바스켓 같은 구조 속에 5개의 쿠션을 채워 넣고, 골격바닥은 스프링을 걸어 놓음으로써 시트 쿠션을 지탱하게 하였다. 르 꼬르뷔제와 그의 파트너인 살롯 베리앙과 같이 디자인한 긴 안락 의자(Chaise Longue)는 다리가 4개인 지지대와 이와는 분리된 시트 몸체로 되어있다. 시트부분을 움직이므로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의 바스쿨란트 의자(Basculant Chair)는 니켈 도금된 금속 튜브를 골격으로 하여 등받이, 좌판, 팔걸이를 소가죽으로 하였는데, 등받이와 좌판은 그 밑에 감추어진 스프링에 의해 탄력을 받으며 등받이는 양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어서 앉는 자세에 따라 각도가 자유롭게 조절된다. 미스 반 데 로에는 바우하우스의 기능주의 이념으로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한스 놀(Hans Knoll)사는 그의 가구를 생산하였다. 미스 반 데 로에는 작업의 본질로부터 형태를 창조하도록 하는 기능주의의 신봉자였다. 디자인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 외의 것을 모두



<그림3> 미스 반 데 로에의 MR 의자 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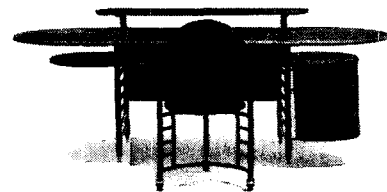


<그림4> 르 꼬르뷔제의 바스쿨란트 1928

제거한 단순하고 깨끗한 형태와 가동성은 미스 디자인의 에센스이다. 미스는 1929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의 독일관을 위해 바르셀로나 의자를 설계했다. 측면 골격의 X자형 활강곡선은 새로운 재료로서 골격을 극적으로 단순화함으로써 현대적 형태로 정리되었다. 투켄하트 저택에 제작한 평평한 편철 프레임에 캔틸레버 원리를 응용한 의자는 바닥으로 'Z'커브를 그리며 내려가는 지지 프레임 위에 고정된 몸체는 두 개의 쿠션이 프레임을 횡단하는 가죽벨트 위에 놓여있다. 팔걸이는 사용자가 의자에서 일어날 때 보다 더 용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윗부분이 무겁게 보이는 이 의자의 시각적 결함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¹¹⁾ 1931년 미스 반 데 로에의 금속 튜브에 캔틸레버 구조를 한 긴 안락의자(Chaise Longue)는 기하학적 형태를 떠나 사람이 누워있을 때의 자세를 고려하여 제작되었고, 다른 캔틸레버 의자와 같이 바닥에서 출발한 프레임 커브는 다리, 둔부, 머리 등 각 부분을 지지하고 있다. 이 의자는 그가 디자인한 마지막 의자다.

또한, 이 시기에는 몇 가지 기본적 요소를 이용하여 가능한 많은 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유닛 가구가 제작되었는데, 특히 최적 치수와 표준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이 슈스터(Franz Schuster, 오스트리아)의 제작가구(Aufbaumobel)에 대한 이념은 불과 2-3년 사이에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등 공공주택 계획의 아파트용 가구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국가에나 전파되었다. 리홀쯔키(Grete Schutte Liholtzky)는 표준화된 불박이 부엌가구를 개발하였다. 그로피우스가 디자인 한 제작가구(Aufbaumobel)역시 이들 가구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였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었으며 몇 가지 기본 요소로써 구매자들의 설비 욕구의 다양함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으며 당연히 대량생산과 기계작업에 용이한 간결한 형태와 제한된 내용의 가구들이었다. 하나의 가구가 다목적,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무용 가구의 현대적인 형태를 보인 1938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 Wright)가 존슨 앤 선(Johnson & Son)빌딩을 설계하면서 내부공간을 혁명적으로 조직한 오픈



<그림5> 존슨 왁스 빌딩을 위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책상과 의자

플랜 오피스(Open Plan Office)를 적용하면서 내부의 집기를 철재와 목재를 혼합한 유기적인 사무가구를 개발하였는데 책

10) 박진배, 디자인 파워 플레이, 보성출판사, 1999, pp10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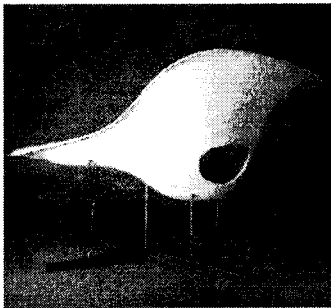
11) 중앙일보사 편집부, 계간미술23호, 1982, p145.

상의 천판이 3단으로 나뉘어져 선반, 업무, 타이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랍은 회전되며 의자는 캐스터가 달린 것으로 사무가구의 획기적인 제안이었으며 사용자 측면에서의 편리성을 추구하였다.

3-3 1941-1960년: 경량성(Lightness)과 이동성(Mobility)의 강조

미국의 가구산업에 크게 공헌한 찰스 임스는 대량생산의 재료와 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여 전통으로부터 벗어난 훌륭한 디자인을 성취하였다. 그는 실제 가구디자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항상 경량성(Lightness), 가동성(Mobility)이라는 기본 아이디어와 그에 따르는 형태의 가구를 제작하였다. 1946년 찰스 임스가 제작한 의자의 금속제 다리는 끝부분에 고무띠가 있어서 고무의 탄성으로 평탄하지 않은 바닥에서도 의자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이 디자인의 에센스는 좌판과 등받이의 두 면이 이루는 만곡의 긴장감이나 쿠션이 없이 이루어진 간결한 형태는 하나의 형태로서 연결되어 보인다.

1948년 뉴욕 근대미술관이 주관하는 비용이 적게 드는 가구를 위한 국제전이 개최되었는데, 이 전시는 전쟁으로 침체된 산업계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신한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발굴이 목적이었다. 당시 찰스 임스는 군사용 레이더에 사용될 유리질의 강화 플라스틱의 실험 경험을 살려, 성형 플라스틱 셀의 좌판을 금속 프레임의 다리가 받치고 있는 암체어를 출품하였다. 또한, 팔걸이가 없으며 포개 쌓을 수 있는 의자가 개발되었는데 양측다리에 붙은 '혹'은 의자를 쌓아 놓았을 때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이다. 같은 형태를 금속 와이어의 망으로 만들어서 천 혹은 가죽패드를 씌움으로써 보다 더 많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얻을 수 있는 의자로 개발하였다.



<그림6> 1948년 저비용 가구를 위한 국제전에 출품했던 임스의 라 체이스(La Cha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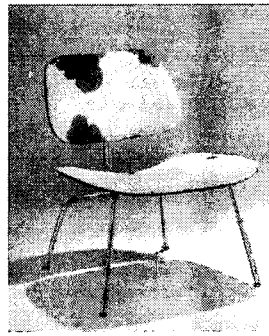
찰스 임스의 한 개의 덩어리로 만든 긴 안락 의자는 얇은 플라스틱 껍질사이에 경질의 고무를 넣고 압력하여 만들어졌다. 의자의 두께를 부위마다 변화를 줌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보다 큰 강도를 부여하였다. 이 의자는 마치 아주 안락하게 앉을 수 있는 추상 조각과 같다. 라운지 의자와 오토만은 넓은 치수에 잘 패딩된 쿠션을 가진 것으로 새로운 형태를 탄생시켰다. 임스의 대부분의 의자에서 보이는 간결함에 비해 비교적 복잡한 구조와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이 의자는 가죽 쿠션을 결합한 3개의 셀과 동질적인 오토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의자의 회전축은 다섯 갈래의 검정색 알루미늄 버팀대 위에 놓여졌다.

1958년 발표된 알루미늄 그룹의 하나인 의자는 얇고 납작한 형태로써 좌판과 등받이가 하나로 만들어져서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골격 위에 놓여 있다. 좌판은 발포 비닐층 위에 비닐 코팅된 나일론과 그 위에 표면의 비닐이나 천으로 여러 층 겹친 재료의 결합은 압축기에 의해 서로 용접되어 좌판에서 등받이까지 일정한 간격의 평행선을 만들고 있다. 한 덩어리로 된 알루미늄 골격은 흡사 동물의 뼈 같은 버팀대로 고정되어 있다. 알루미늄 그룹의 의자는 가볍고 안락한 장점을 지니며 가죽 쿠션을 첨가함으로써 안락감은 더 증대되는 데, '소프트 패드'의자로 불려진다.

찰스 임스와 해리 베르토이어(Harry Bertoia)의 가벼운 강철 망의자는 안락감이나 기능이라는 관점보다 오히려 탁월한 조형감이 높이 평가되는 의자이다. 새로운 제작방식으로 인한 특수한 형태가 디자인을 특징짓는다. 실험적인 과정에서 얻어진 이 의자의 형태는 복합적인 곡선의 기복이 가져다 준 선들의 변화 위에 빛나는 크롬도금이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건축가 에로 사아리넨(Eero Saarinen)의 의자인 튜울립 암체어는 알루미늄으로 구조되고 흰 플라스틱이 코팅된 다리 부분과 흰색 폴리에스터 GRP로 압축 성형된 좌판, 그리고 성형 루버(Form Rubber)에 천으로 씌워진 쿠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흰색 폴리에스터를 압축 성형(pressure molding)한 좌판과 발포성 고무의 쿠션이 파이프 각 부위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의자의 다리를 간단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다리로 만들어졌다. 의자는 앉는 사람의 배경이 되며 공간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폴 크야홀름(Poul Kjaeholm, 1929-1980)이 디자인한 이 의자는 크롬 도금된 편철 프레임에 등나무로 엮은 좌판이 올려져 있다. 구조의 간결함과 사용된 재료들 간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 의자는 오금을 불편하게 하는 좌석 앞부분에 가로지르는 버팀대가 없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덴마크의 건축가 아르네 야콥센(Arne Jacobsen)이 설계한 의자와 오토만은 매우 조형적이면서 화려하고 우아하고 쾌적하다. 코펜하겐의 로알호텔 가구 및 실내용품의 디자인 중 하나이다. SAS 호텔을 위해 디자인한 의자 '백조'는 플라스틱 몸체를 가죽으로 대고 회전하는 부분의 버팀대는 금속으로 처리하였다. 베르너 판톤(Verner Panton)이 화이버 글라스와 폴리에스터로 강화해 낸 의자는 쌓을 수 있으며 다양한 색으로 제작되었다.

1950년 한센(Fritz Hansen)사는 건축가 피터 흐비트(Peter Hvidt)와 뮐가드 닐센(Orla Molgaard Nielsen)의 작품 'AX'를 생산하였다. 이것은 테니스 라켓으로부터 차용한 새로운 제작 방식과 새로운 구조를 지닌 의자이다. 아르네 야콥센(Arne Jacobsen)은 '미래의 집(1926)' '스텔링 빌딩(1937)' '레도우레 시청사(1953)' '코펜하겐 SAS 빌딩(1955)'을 위해 많은 의자와 가구를 디자인하였다. 그는 주로 적층재, 금속재료와 공업적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가구를 디자인하였다.

1940년대 이후, 덴마크 가구디자인을 대표하는 한스 베그너(Hans J. Wegner, 1914)는 혁신적인 재료와 형태를 구하기보다는 정교한 구조와 아름다운 비례, 산뜻하고 소박한 양식을 추구한다. 다른 가벼운 구조의 의자들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그림7> 찰스 임스의 라운지 의자 1945

코팅된 나일론과 그 위에 표면의 비닐이나 천으로 여러 층 겹친 재료의 결합은 압축기에 의해 서로 용접되어 좌판에서 등받이까지 일정한 간격의 평행선을 만들고 있다. 한 덩어리로 된 알루미늄 골격은 흡사 동물의 뼈 같은 버팀대로 고정되어 있다. 알루미늄 그룹의 의자는 가볍고 안락한 장점을 지니며 가죽 쿠션을 첨가함으로써 안락감은 더 증대되는 데, '소프트 패드'의자로 불려진다.

찰스 임스와 해리 베르토이어(Harry Bertoia)의 가벼운 강철 망의자는 안락감이나 기능이라는 관점보다 오히려 탁월한 조형감이 높이 평가되는 의자이다. 새로운 제작방식으로 인한 특수한 형태가 디자인을 특징짓는다. 실험적인 과정에서 얻어진 이 의자의 형태는 복합적인 곡선의 기복이 가져다 준 선들의 변화 위에 빛나는 크롬도금이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건축가 에로 사아리넨(Eero Saarinen)의 의자인 튜울립 암체어는 알루미늄으로 구조되고 흰 플라스틱이 코팅된 다리 부분과 흰색 폴리에스터 GRP로 압축 성형된 좌판, 그리고 성형 루버(Form Rubber)에 천으로 씌워진 쿠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흰색 폴리에스터를 압축 성형(pressure molding)한 좌판과 발포성 고무의 쿠션이 파이프 각 부위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의자의 다리를 간단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다리로 만들어졌다. 의자는 앉는 사람의 배경이 되며 공간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폴 크야홀름(Poul Kjaeholm, 1929-1980)이 디자인한 이 의자는 크롬 도금된 편철 프레임에 등나무로 엮은 좌판이 올려져 있다. 구조의 간결함과 사용된 재료들 간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 의자는 오금을 불편하게 하는 좌석 앞부분에 가로지르는 버팀대가 없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덴마크의 건축가 아르네 야콥센(Arne Jacobsen)이 설계한 의자와 오토만은 매우 조형적이면서 화려하고 우아하고 쾌적하다. 코펜하겐의 로알호텔 가구 및 실내용품의 디자인 중 하나이다. SAS 호텔을 위해 디자인한 의자 '백조'는 플라스틱 몸체를 가죽으로 대고 회전하는 부분의 버팀대는 금속으로 처리하였다. 베르너 판톤(Verner Panton)이 화이버 글라스와 폴리에스터로 강화해 낸 의자는 쌓을 수 있으며 다양한 색으로 제작되었다.

1950년 한센(Fritz Hansen)사는 건축가 피터 흐비트(Peter Hvidt)와 뮐가드 닐센(Orla Molgaard Nielsen)의 작품 'AX'를 생산하였다. 이것은 테니스 라켓으로부터 차용한 새로운 제작 방식과 새로운 구조를 지닌 의자이다. 아르네 야콥센(Arne Jacobsen)은 '미래의 집(1926)' '스텔링 빌딩(1937)' '레도우레 시청사(1953)' '코펜하겐 SAS 빌딩(1955)'을 위해 많은 의자와 가구를 디자인하였다. 그는 주로 적층재, 금속재료와 공업적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가구를 디자인하였다.

1940년대 이후, 덴마크 가구디자인을 대표하는 한스 베그너(Hans J. Wegner, 1914)는 혁신적인 재료와 형태를 구하기보다는 정교한 구조와 아름다운 비례, 산뜻하고 소박한 양식을 추구한다. 다른 가벼운 구조의 의자들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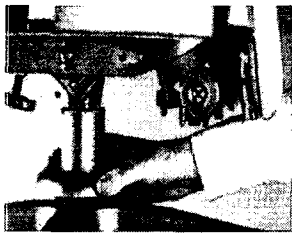
의자는 볼륨감이 있으며, 성형한 발포고무를 가죽으로 씌운 좌석이 금속 튜브 골격으로 지지되고 있다.

3-4 1961-1985년: 인체의 적용 및 부정형적 형태

로버트 벤츨리(Robert Venturi)는 현대 이념에 반발하여 상징주의에 대한 대중의 기호를 분명히 목격하고, 대중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업적 환경과 19세기 질충주의의 재평가를 주장하였다. 1966년 그의 저서 건축에 있어서 복잡성과 대립성'에 관한 대중의 기호와 선호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는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들의 표현방식이 되었다.¹²⁾

1968년 가티, 파올리니(Gatti, Paolini)에 의해 디자인된 자루형 의자(Sacco Chair)는 직경 3mm의 작은 폴리에틸렌 구슬을 수백만개씩 채워 넣은 것으로 어떠한 크기와 형태의 인체에도 자유스럽게 적용되는 의자이다. 이 의자는 극단적으로 부정형적인 형태를 취한다. 조에 콜롬보가 설계한 의자(additional System)는 서로 사이즈가 다른 6개의 납작한 발포고무 덩어리가 밑부분에 감추어진 금속봉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 신축성이 강한 천으로 씌워진 각 유니트들은 여러 개가 결합되어 원하는 길이로 조절될 수 있다. 살로네 델 모빌(Salone del Mobile)에서 선보인 조 소파(Joe sofa)는 대중적인 경향의 부드러운 조각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크라우디오 살로치(Claudio Salocchi)가 디자인한 의자(The Back Support)의 등받이와 좌판은 주입 형성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금속 파이프로 된 버팀대 위에 좌판 높이가 조절되도록 디자인되었다.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마리오 벨리니(Mario Bellini, 1935-)가 제작한 의자는 금속 골격 위에 딱딱한 가죽으로 만든 껍질을 씌우도록 제작되었다. 노르웨이의 피터 옉스비크 의자는 앉는 자세에 관하여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자세를 제안하였다. 등부에 받는 압력을 다리로 분산시키고, 몇 가지 앉는 자세를 달리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1968년에 '제너럴 방재회사'가 'GF시리즈'로 유명한 의자들을 선보이게 되는데, 소비자로서 하여금 자신의 신체에 적합하도록 조절기능을 가지도록 하여 인체공학적 기능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다. 일명 '굿폼체어(Goodform



<그림8> GF시리즈의자, 1968

Chair)라 불린 이 사무용 의자는 작업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고, 등뼈의 곡선에 따른 수평·수직·높이·균형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무용가구의 전형이 되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무용가구는 모듈러 워크스테이션(Modular Workstation), 일명 시스템가구(System Furniture)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구와 집기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요구로부터 출발된 것이었다.¹³⁾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업체에서 개방형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허먼 밀러는 시스템가구 제품이 60억 달러이상의 가치를 가진 산업에 기초한 대기업 중의 하나이다. 허먼 밀러의 의자 제품은 또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을 보여준다. 1976년 에르곤의자(Ergon chair)는 사무실 의자에 있어서의 인간공학적 디자인을 보여 주었고, 1984년 에쿠아 의자(Equa chair)는 편안함과 인간공학적인 면을 지지하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

스틸케이스(Steelcase)사는 1981년에 CAD(Computer Aid Design)에 의한 사무실 공간 설계방식을 소개하였고 이 시기에 스틸케이스의 제품 중에 프리스탠딩 퍼니처 시스템(Freestanding Furniture System)이 Idea상(Industrial Excellence Award)을 수상하였다.

3-5 1986년-현대: 디자인의 다원화와 금속의 새로운 조형 창출

1986년 제작된 의자 시카고는 적층 화이버글라스 성형방법으로 제작되었다. 버팀대가 좌판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좌판 면이 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조절할 수 있는 암체어는 기어(gear), 스테인리스 스틸의 공업용 체인, 스테인리스 스틸 막대와 축 등과 같은 기계적 요소들을 이용하였고, 그들을 표면에 그대로 노출시켰다. 디자인의 주된 특징은 사슬의 길이로써 앉는 각도가 달라지도록 계획한 메커니즘에 있다. 1993년 이탈리아의 짜노따(Zanotta)사를 위해 빼에프로 아로지오(Pietro Arosio)가 디자인한 의자 미란돌리나(Mirandolina)는 강도가 강한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었는데, 그 구조는 마치 한 장의 종이를 오려서 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듯한 간결한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새롭게 요구되어지는 프로젝트는 새로운 기능과 형태 구조를 갖는 전혀 다른 가구 디자인을 탄생시키는데, 작업 중에도 앉아있는 상태에서 몸의 움직임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로 스프링 고무발은 매우 간단한 구조와 형태를 통해 기능의 효과를 얻어낸 예라 하겠다.

그밖에도 이 시기의 많은 가구에서 볼 수 있는 조형적 공통점은 장식의 배제를 통한 기술과 재료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되어진 조형적 요소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도 역시 형태의 단순미를 강조한다. 이 시기의 현대가구 디자인의 조형적인 면은 합리주의적 생산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형태와 기술적 요인에 의한 형태로 재료의 특성과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단순하고 절제된 직선과 곡선을 사용하여 재료에 따라 조각적이거나 다양한 기능에 의한 구조적인 형태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조형철학은 공통적으로 단순하고 절제된 조형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양한 경향으로 공존하며 제각기 다른 조형이론을 갖는다. 그 경향들은 각기 다른 조형이론을 가지면서 상이한 이상을 갖지만 간결하고 절제된 조형미와 재료와 기술을 존중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4. 결론

위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현대 금속가구디자인의 시대별 배

12) Charles Jencks,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Rizzoli, 1991, p89.

13) Peter Dormer, 강현주, 조미아 역, Design since 1945, 시각과 언어, 1996. pp162-166.

경과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1850년에서 192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에 사회적 상황이 그 이전의 시대적 양상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것은 기계기술의 발달과 일련의 민주화 사상 때문이었다. 이 시기 금속가구의 특징은 이미 빅토리아 시대에서 보여주었던 표면 장식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뚜렷이 보이며, 입체파(Cubism)와 데 스틸의 영향으로 금속가구디자인에 있어서 직선적 요소를 취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1921년에서 1940년 사이는 기능주의 이념 운동으로 디자인의 표준화를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물질의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조의 개선과 생산공정의 경제성에 높은 가치를 둔 시기이다. 구조적으로 이음새를 줄이고 금속의 탄력을 이용한 켈틸레버 원리를 적용한 디자인이 많이 발전되었으며, 이 시기 이후로 곡목(Bent Wood)을 대신하여 강철로 가구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내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르 꼬르뷔제의 의자와 같이 금속 튜브를 휘지 않고 각기 용접하며 골격 바닥은 스프링을 걸어 놓음으로써 시트 쿠션을 지탱하게 하는 건축적 방법을 적용한 가구들도 있었다.

1941년에서 1960년 사이의 기간은 공업사회의 발전과 함께 세계 각 지역이 공업화함과 때를 같이하여 디자인에 있어서도 국제주의 양식이 유행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디자인의 과학적 접근 방법이 이용되고 알루미늄, 적층재, 플라스틱과 같은 신소재가 이용되어 특수한 형태가 개발되었으며 특히 3차원의 물당에 관한 프로세스에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작가이었던 찰스 임스의 작품에서와 같이 경량성(Lightness), 이동성(Mobility)이라는 기본 아이디어와 그에 따르는 형태의 금속가구들이 제작되었다.

1961년부터 1985년 사이의 후기 산업주의의 새로운 개념은 미래 사회에 대한 과잉 확장주의의 비전으로부터 탈피하여 건강하고 인간적이며 생태학적인 비전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전 시기는 기능에 있어 물리화적인 면이 강조된 것에 비해 1960년대 이후 인간의 정서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이 기능성의 개념에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생산성, 새로운 구조 재료의 활용, 실용성, 이동성, 인간의 정서적 요소, 단순성, 복합성, 상징성, 심미성 등을 다양하게 추구한 금속가구가 발표되었다. 다각적인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표현방식에 있어서 모더니즘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어떠한 크기와 형태의 금속가구가 할지라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반응하여 인체에 자유스럽게 적용되거나 조절되는 형태들이 고려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은 세계적으로 무역전쟁 시기로 디자인에 있어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이 요구되어지고 새로운 방식과 기능의 가구들이 디자인되었다. 그것은 좀더 섬세해진 디자인의 다원화와 다양화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에는 합리주의디자인(Rationalism Design)과 미니멀리즘디자인, 현대 역사주의디자인(Modern Historicism Design) 및 하이테크디자인(Hightech Design)의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새로이 등장한 신허리주의디자인(NeoRationalism Design)으로 모더니즘의 재인식을 통한 리디자인(Redesign)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는 글로벌리즘 시대에 발맞추어 동서양의 양식이 혼합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양식의 요소를 수용하여 새로운 디자인 창출을 꾀하는

데, 간결한 형태에 다양한 색채표현과 풍부한 양식의 도입은 현대 금속가구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라 하겠다. 또한 디자인 경향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 공통적이거나 상이한 표현양식이 드물다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가구에 금속을 사용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용되는 금속이 주는 기존의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고 보다 고급스럽고 유연한 이미지로 디자인하여 현대인들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 금속가구디자인에서 가장 고려되고 있는 점으로 나타났다.

참고 문헌

- 김춘일, Pop Art와 현대인, 열화당. 1983
- 박진배, 디자인 파워 플레이, 보성출판사. 1999
- 정시화, 현대디자인 연구: 현대디자인의 이론적 배경, 미진사. 1981
- 권명광, 바우하우스, 미진사. 1984
- Alvin Toffler,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유재천 역, 학원신서. 1985
- Ann Ferebee, 서병기 역, 디자인 소사, 미진사. 1983
- Peter Dormer, 강현주, 조미아 역, Design since 1945, 시각과 언어. 1996
- 勝見 勝, 현대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박대순 역, 미진사. 1983
- 중앙일보사 편집부, 제간미술 23호. 1982
- 김광남, 현대 인테리어 디자인의 특성 및 경향,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1985
- Philip Johnson & Henry Russel Hitchcock, International Style, W. W. North on, N. Y. 1972
- Karl Mang, History of Modern Furniture, London; Academy Editions. 1979
- Lawrence Alloway, American pop Art, New york: Rizzoli. 1974
- Charles Jencks,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Rizzoli. 1991
- Turner, Ralph: City Steel-Contemporary Metal Furniture, London; Craft Council Gallery. 1991
- Ostergard, Derek E, Bent Wood and Metal Furniture, 1850-1946,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7
- Massey, A.: Interior Design of the 20th Century, NY; Thames and Hudson, 1990
- Sharp Dennis, Pel and Tubular Steel Furniture of the Thirties, London: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1977
- Stewart, Richard, Modern Design in Metal, London: John Murray Ltd, 1979

